

보도 '하는' 국가 '되는' 나라

강연초록-편견적 뉴스보도 연구의 새로운 제안

뉴스 연구의 주된 목적은 비공정성, 비정확성, 비균형성 보도가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 현상이 생겨나는 원인을 밝히고 뉴스가 어떻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뉴스가 왜곡되는 원인이 만약 누군가의 계획된 의도에 의해서라면(예: 정부의 견제) 쉽게 규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에 있어 비편향적인 편파적 뉴스의 원인을 밝히는 데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국제뉴스에 두고 국제뉴스의 여러 특성이 다른 데 불구하고 국내뉴스와 별 구별없이 연구되어 온 국제뉴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는 MaChride Commission(1980)에 이르기까지 양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동서간에 정보 남북간의 있어서의 불균형 또는 호를 비서방국가에서 서구 문화를 수입하기 용이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비서방국가의 문화 의식에 서구가치관이 그 중심이

서 일하는 기자들이 자기나라 지배체계의 정치적 가치관에 어울리는 뉴스를 만들고 보도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주장하였다. 제3세계에 관한 보도가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은 부유한 서방국가들이 세계의 주요 뉴스조직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

이 주원인은 주로 취재기자들이 받는 시간의 압박성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취재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즉 이제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 단지 정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취재기자들로 하여금 사건을 빨리, 먼저 보도하려는데 치우치게 하고 그 결과 기자들은 사건을 다양한



한국언론학회에서는 지난 5월25일 본교 법대에서 3백여명의 언론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본교는 이날 발표된 총 14개의 주제 중 "편견적 뉴스보도 연구의 새로운 제안"(민경숙 본교 신방학 강사)이라는 강연내용을 발제, 기록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정치·경제·군사적 알력 영향받는 국제뉴스 국가차원 넘어서 세계체제 단위로 분석해야

필수있도록 한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여러 실증적인 연구통계와 함께 서구 선진국이 독점한 뉴스 정보 체계를 통해 만들어진 국제 뉴스는 비서방국가의 소식을 전하는 데 인색하고 또 전하더라도 비서방국가의 비서방적이라는 악재부터 이 비서방국가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 전달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뉴스 시장구조와 세 개의 주요 서구 뉴스통신사 내 세계 뉴스조직을 강조, 국내뉴스를 대상으로 연구한 소수의 연구자들이 국한된 연구가 그 연구에서 언급한 연구방법과 그 연구에서 언급한 연구방법을 구조적 환경이 틀리는 국제뉴스에 적용하는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본 발표자의 이같은 주장은 국내뉴스를 연구하기 위해 고려된 연구방법들을 하나하나 검토함으로써 명백히 드러난다.

우선 "소유주와 소유집중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지배계급 이데올로기 확장의 이해를 위해 경제와 정치 구조 분석을 강조한다. 머독(Murdoch 1980)은 미디어 중사자들, 특히 신문사 간들이 사회의 다른 경제, 정치 지배계급과 어떻게 결탁하고 있는지를 분석, 증명하고 이러한 조직적 속

각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은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서방 사건을 보도하게 됨으로써 보도내용이 정확히 될 것이라 주장하는 편견적이라는 주장이다.

비편향적 "전문 직업과 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기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가 뉴스가 되고자 하는 것만은 뉴스로서 마땅치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모든 조직체는 사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일하는 사람들에 그 조직체에서 필요로 하는 어느정도 일정한 사고나 행동을 요구하게 되고 근무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되며, 이것은 신문이나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편견적"에 대한 연구로 어떤 뉴스를 얼마나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도할 것인지 혹은 무엇을 보도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며, 이는 기자들의 전문 직업과정과 가장 구체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제뉴스를 보도할 때 지시된 편견적에 따라 뉴스내용은 특정한 나라에 좀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내용을 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바 국제뉴스의 특성이 국내뉴스의 그

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국가의 외교활동이나 정책은 더이상 제국주의적 결과라 아니라 오히려 세계체제 속에서 생긴 갈등의 결과일 수도 있다(Brunsal 1980). 이는 지배계급을 분석하고 계급간의 갈등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연구범위는 반드시 세계체제를 한 단위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뉴스의 내용이 보도되어지는 나라와 보도국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관계가 설명되어질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제뉴스를 연구하기 위한 포괄적 방법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뉴스와 성격이 다른 국제뉴스의 연구는 보도국과 보도되어지는 나라와의 외교관계와 그러한 관계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국과의 삼각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분석은 특별히 세계체제에서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제3세계의 국제뉴스 보도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제3세계의 외교정책은 주로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강대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받고, 그러한 외교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변부

국가들의 지배계급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또하나의 거대한 계급 구조가 있으므로 완전 독립적인 정책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좀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들이 행해질 수 있다.
(기록·정리: 학술부)

미니시리즈- '한국민족학회'를 찾아서

모든 역사와 문화의 주체는 바로 그 민족, 민중이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이기 때문에 한국민족문화는 당연히 한 민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민족학회'가 바로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 고유한 한국민족문화

를 규명하고자 모인 곳이다. 한국민족학회는 기존의 단편적인 한국문화 연구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유기적·입체적으로 민족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즉, 한국민족문화의 주체가 되는 민족·민중을 역사학분야에서만 바라본 연구에서 한국민족학에서 진일보하여 종교·예술·의학분야에서도 함께 유기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민족학회의 활동중 가장

다수를 통해 고조선의 판도, 민족의 이동관계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과의 교류 또한 파제로 남아있다. 중국, 몽고, 소련, 일본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방대한 연구자료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간의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담아내고, 지속적으로 연구성

민족문화연구의 산실

방대한 자료수집위해 외국교류 필요 종교 및 예술·의학 분야와 유기적 연구 전개

중요한 행사로서 1년에 2차례 개최되는 '한국민족 학술발표회'는 지난 89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과정, 일 본 고대사 연구, 한민족의 사민지, 민족과 민중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한민족학 학술발표회는 일반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다.

또한 매달 각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월례발표회를 참가가 어려워 지방에서의 월례발표회도 개최하고 있다. 많은 연구성과와 논문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족학회는 아직도 많은 실천적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은 한민족의 민주주의에 대한 영토문제인데, 지금까지의 문헌연구에 한계점이 많기 나타나고 있어 이제의 고고자료와 현장

를 쌓아가기 위해서 기획출판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은 있어도 참가가 힘든 지방회원들을 위한 지방순회강연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민족학회 회원들은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한문이라서 진정한 우리것의 얼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족을 '저래'로 개칭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쟁단계일뿐, 각 단위에 대한 내용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본교에서는 김태곤교수의 에도 김진영(문리대·국문과)교수, 박성종(문리대·사학과)교수가 한국민족학회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금주 기자)



'사람들이'하는 카멜레온

5월3일 단한번도 안전이 부결된 적이 없는 카멜레온이 가능한지조차 모르는 국무회의에서는 전두환장관지시대로 그대로 두고 사복체포조(일명 백골단)로 해체하지 않겠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하였다.

이날 정부는 기적 백골단에 정식기동(열은 청룡)과 전투화(열은 청룡)를 최후단 발사를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 다음날 내부부정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비·사위 안전관리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올해안에 백골단을 무장정비로 대체할 것이며 사위진압방법 역시 체포·연행 등 공격적 진압에서 해산위주의 수비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골단 창립때부터 그 배경을 안던던 정발 모두가 비웃을 이야기이다.

그런데, 백골단을 무장정비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무소용원이 백골단으로 둔갑했는데 또다시 이름만 하사해주면 된다는 것인가. 그들이 하는 일은 과거나 현재



나 변함없다. 무조건 몸동으로 패고, 발로 걷어차고, 시린 학살을 토끼몰이하듯 모는 것이다. 이런 학살을 토끼몰이하듯 모는 지령이나 국토방위하는 군인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무술경연이 진을 치고있다. 백색헬멧의 검원은 페이트가 마치 제 마르지도 않았는데 검원의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이 없어지지는 커녕 카멜레온 마냥 색깔만 덧칠한채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 의해 김귀정장이 또 죽어 갔다.

정권의 방패막이로 군사독재정권의 사병으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아니 위법임을 알면서도 정권을 시위진압에 불철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사의 죽음과 김양의 죽음은 백골단 해체의 여론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의 임무가 어찌하여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될수 있겠는가.

정권은 그들의 도덕성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지금은 과잉진압 폭력시위의 악순환이 아닌 백골단에 의한 살인잔극이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폭력진압이 완전체제될 것인지 세시봉기 모듬에게 묻고싶다.

바람까지 향기로운 장마나라

사랑의 장미축제

기간: 5/18~6/30

자연의 나라, 동화의 나라
자연농원

야간개장
매일밤 10시까지

너무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200여종, 200만송이, 세계에서 희귀한 갖가지 장미꽃들이 8,000여종의 장미원에 가득가득— 연인의 머리칼 사이로, 장미꽃 향기는 봄바람에 사랑으로 날리옵니다. 야간개장과 더불어, 반짝이는 별빛과 환상적인 조명 아래 아름다운 즐거움이 매일밤 10시까지 이어지는 곳— 자연농원으로 초대합니다.

■ 매일행사

- 장미음악행진: 장미가야와 동물캐릭터가 펼치는 신나는 음악퍼레이드 (3회)
- 장미디스코한마당: 3인조 밴드의 연주에 맞추어, 고개에 함께 참여하는 다스코축제 (3회)
- 젊음의 연주: 그룹사운드 연주, 밴드파티와 함께 스테트스 청산 (3회)
- 피아노3중주: 환상의 장미원에서 펼쳐지는 낭만의 선율 (야간 특별행사)
- 장미 축제 쇼: 인기 가수 그룹사운드, 자연농원 전속공연 팀이 출몰하는 나이트 쇼 (야간 특별행사)
- 장미 콘서트: 웅장한 40인조 장미 오케스트라와 인기 가수의 콘서트 (土)

■ MBC 장미축제 공개방송 (6/8)

(MC: 사세원/출연: 신혜원, 김관진, 이상우, 김민우, 권인하, 신은별부스)

자연농원의 맛있는 식사를 즐기세요

자연농원 특산 메뚜기 바베큐, 팔도미리판, 장터, 패스트푸드점 등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어 언제나 즐겁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한식	정식	간식	음료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소박	소박	소박	소박

■ 장미가야제

- 기간: 5월~10월 매주 일요일
- 장소: 자연농원 특산야외무대
- 참여대상: 3세 미만의 남녀
- 참가료: 장미가야 및 기념품
- 특별: 레코드 취입, 가수출판, 입장자 전원 음반디스크 제작
- 접수처: 장미가야 사무국 02) 430-8839, 9293
- 자연농원 판권 02) 745-0482, 0335) 30-3304~5
- 주최: 자연농원, 스폰서, 후원: 열매
- 후원: 현대농원

휴일 10시 이전 입장객 자유이용권 특별할인!

상해와트라이브스, 여름로운 놀이시설— 대인 W14,000—W10,000
휴일 오전 10시까지 입장하시면 자유이용권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6월 30일까지) 청소년 W11,000—W9,000
소인 W8,000—W7,000

자유이용권 연간 회원권

모든 즐거움이 터져나오게 하는 OK! 1년분의 즐거움을 한방에! 카드 /

대인	W14,000	대인	W30,000
청소년	W11,000	청소년	W24,000
소인	W8,000	소인	W18,000

이용: 각 관공정에서 수시출발
수원: 각 관공정에서 수시출발
66번 시내버스 수시출발
● 두배나 넓어진 주차장, 만여대 동시주차 가능

문의처: ● 일반전화: (02) 234-6171-4 ● 단체전화: (02) 745-0482, 7093 ● 팩스: (0335) 33-0088
● 영업전화: (0652) 85-7388 ● 영업전화: (051) 866-6611